

꽉막힌 조선대 이사회 사태 ‘돌파구’ 열릴까

26일 궤석이사 1명 선임위한 이사회 개최

총장·총동창회장 당연직 이사 참여 검토

대학은 물론 지역 이사회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위해 월권까지 시도한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대는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하

자는 의견과 궤석이사(총원 9인 중 1명 공석)를 우선 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사회가 궤석이사 를 먼저 선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21일 조선대에 따르면 오는 26일 광주 프라드호텔에서 현재 공석인 궤

석이사 1명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린다. 조선대 이사회는 모두 9명으로 현재 1명이 공석인 상태이며 나머지 8명은 임기나 초 모두 만료됐다.

이사회는 신임 이사 선임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개방이사 선임(3명)과 기준 이사 8명 중 2명을 제적해 6명을 선임(연임), 차기 이사 9명을 확정하려 했으나 모두가 연임을 원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궤석이사 1명을 우선 선임하기로 하고, 26일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를 앞둔 상태에서 이미 수차례 이사 선임 회의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민족 학교 사정에 밝고, 조선대와 지역 사회의 연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을 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조선대 총장은 타 사립대와 달리 직선제 총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민립대학의 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다

질 수 있어 이사로서 적임자라는 주장이다. 또한 총동창회장도 지역 사회와 동문을 우수로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인사인 만큼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 사립대학 대부분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키는 점을 감안, 조선대 이사회도 향후 이들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이

사회와 대학 집행부가 많은 분야에서 제각각인 경우 많았다”면서 “총장과 총동창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이사를 가운데 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의 이사회 진입을 꺼리는 이들이 있어 이사 선임이 이번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조선대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자리가 빈 1명의 이사를 뽑는 데에는 이사회의 의견이 모인 상태”라며 “학교발전과 이사회 활동에 적합한 인물이 추천되면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체험기자 chae@kwangju.co.kr



자살암시 70대 가거도서 실종

가거도를 방문한 7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2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A(70)씨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신안군 희산면 가거도의 한 숲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8분께 가거도 우체국에서 유서와 소지품을 아들(37)에게 우편으로 보내 자살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우울증 40대 “훔칠 때 성취감 느껴”

○·백화점 등산복 매장에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온 40대 여성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모(여·41)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S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시가 38만원 상당 바람막이 재킷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옷을 훔쳤다는 것.

○·2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오던 서씨는 “물건을 훔칠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범행을 자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여고생, 모야모야병 뇌수술 ‘단기 기억상실’

“미용실서 휴대전화 가방에 넣고 잊어버려”

병 때문에 자신이 며칠 전 물건을 훔친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광주서부경찰은 21일 미용실에서 이모(여·41)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A(여·16)양을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미용실에서 이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이 미용실 CCTV에 찍힌 A양의 범행 모습을 보여줘도 A양은 기억해내지 못했다.

A양은 다만, 최근 ‘모야모야병’

으로 뇌 수술을 받은 뒤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을 겪어 왔다고 고백했다. 뇌의 모세 혈관이 막어지면서 뇌를 압박하는 병, A양 주변인들도 경찰에서 “통닭을 먹고 남긴 빼를 보고도 뭘 먹었는지 모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미용실 업주 이씨 휴대전화를 평소 자주 빌려쓰는 친구 휴대전화로 착각, 자신의 가방에 넣어놓고 곧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 임동에 ‘야구의 거리’

광주시 북구가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임동 일산방지 정문 일대에 조성한 ‘야구의 거리’가 21일 완공됐다.

어린이들이 야구공과 병풍으로 만들어진 조형물 주위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개구리 분유’ 진실은?

목포 주부 “분유서 4.5cm 개구리 사체 발견”

남양유업 “제조공정 상 불가능”…수사 의뢰

분유에서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 남양유업은 21일 경찰에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분유는 제조공정 중 0.4~2.8mm 규격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하기 때문에 45mm의 개구리가 통과할 수 없다”며 “분유 생산 라인은 무인 자동화 공장이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분유는 고압·고온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조건과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훈련될 수 없

고, 이후 2주간 수분 5% 미만의 검조 상태로 보관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형체를 유지한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지역 여건상 어린이들이 개구리를 자주 체집할 수 있고,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해 개구리를 분유 통 안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인터넷 매체는 목포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길이 4.5cm의 개구리 사체를 남양유업 분유에서 발견됐으며, 식약처가 이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일용직 알바’ 대학생 투신

광주 화정동 빌딩서…채무 문제로 고민한 듯

21일 오전 7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A 주차빌딩 앞에 이모(25·제주시)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빌딩 관리원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북 모 대학교 학생으로 최근 광주로 와 화정동 근로자 대기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채무 이자를 독촉하는 문자 수십 건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및 휴대전화에 남겨진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이씨가 채무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보고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양제철 통신케이블 화재…공장가동 중단

교체 2~3일 걸릴 듯

광양제철에 화재가 발생,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1일 오전 10시10분께 광양시 광양제철 제2제강 공장 지하에 설치된 통신케이블 관로에서 불이나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께 진화됐다.

불이 난 뒤 현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양제철은 이날 화재로 케이블 관

로를 지나던 컴퓨터 등 통신선들이 불에 탔는 바람에 제강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족열 등으로 지하 통신케이블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2~3일간 제강공정과 관련된 통신선들을 교체하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매각 물건의 표시 및 매각 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법정 평가액	최저 매각가격	비고
			별도로 표기된 경우	별도로 표기된 경우	
별도로 표기된 경우	별도로 표기된 경우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단위: 원]	
2013년 9월 27일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동로 41, 201동 16층 1601호 [산정동, 부영애시아] 84.8198㎡	아파트	170,000,000 170,000,000	
2013년 9월 28일	1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0, 507동 2층 201호 [동천동, 호반베르디움] 84.8580㎡	아파트	240,000,000 240,000,000	잘 소진되지 않는 최선 순위 진세권 있음
2013년 9월 29일	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51번길 10, 102동 15층 1504호 [성동동, 광명하이츠단지] 84.9696㎡	아파트	116,000,000 116,000,000	
2013년 9월 30일	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1-4 금호쌍용아파트 208동 2층 203호 164.965㎡	아파트	310,000,000 310,000,000	
2013년 9월 31일	1	광주광역시 북구 오지동 957-9 3층 303호 8.28㎡	아파트	44,000,000 44,000,000	침차인 있음
2013년 9월 32일	1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92호 매곡동대주피아노라운지 104동 16층 1603호 84.9667㎡	아파트	204,000,000 204,000,000	
2013년 9월 33일	1	국성고 곡성을 읍내리 263-11 612㎡ ① 국성고 곡성을 읍내리 263-11 612㎡	대지	88,983,320 88,983,320	일괄 매각. 제시외 면적 60.2㎡
2013년 9월 34일	1	회순고 춘양연 양곡리 313 503㎡ ② 회순고 춘양연 양곡리 313 503㎡	대지	28,036,500 28,036,500	일괄 매각. 제시외 면적 60.2㎡
2013년 9월 35일	1	지상 2층 저층 주택 617-7 66.1㎡ [일부타운] ③ 지상 2층 저층 주택 617-7 66.1㎡	주택	4,013,100 4,013,100	일괄 매각. 제시외 면적 60.2㎡
2013년 9월 36일	1	화순군 남면 사수리 36 81㎡ ④ 화순군 남면 사수리 36 81㎡	주택	5,580,000 5,580,000	일괄 매각. 제시외 면적 60.2㎡
2013년 9월 37일	1	화순군 불산면 유허리 374 121㎡ [현황: 양아장] ⑤ 화순군 불산면 유허리 374 121㎡ [현황: 양아장]	주택	3,588,540 3,588,540	일괄 매각. 제시외 면적 60.2㎡
2013년 9월 38일	1	화순군 남면 월간리 356 598㎡ [공유자] ⑥ 화순군 남면 월간리 356 598㎡ [공유자]	주택	3,588,090 3,588,090	일괄 매각. 제시외 면적 60.2㎡
2013년 9월 39일	1	화순군 남면 월간리 356 598㎡ [공유자] ⑦ 화순군 남면 월간리 356 598㎡ [공			